

#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남재량\*

## I. 서론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한 나라의 청년은 곧 그 나라의 미래이므로 청년의 실업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심을 계기로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이 노동시장이나 교육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실업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외환위기하에서 매우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였다는 점과 외환위기 이후에도 이들의 실업률이 경제 전체의 실업률이나 다른 집단들의 실업률보다 매우 높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지난 20여년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정도이다. 그러나 과연 청년의 실업률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여러 취약계층들을 제쳐두고 이들의 실업, 특히 청년 가운데에서도 대졸자의 실업을 문제삼아야 할까?

청년층은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연령계층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노동시장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발한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실업은 다른 연령층의 경우보다 매우 높게 된다. 실제로 청년층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의 경우보다 높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경제이론과도 부합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우리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기울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rnam@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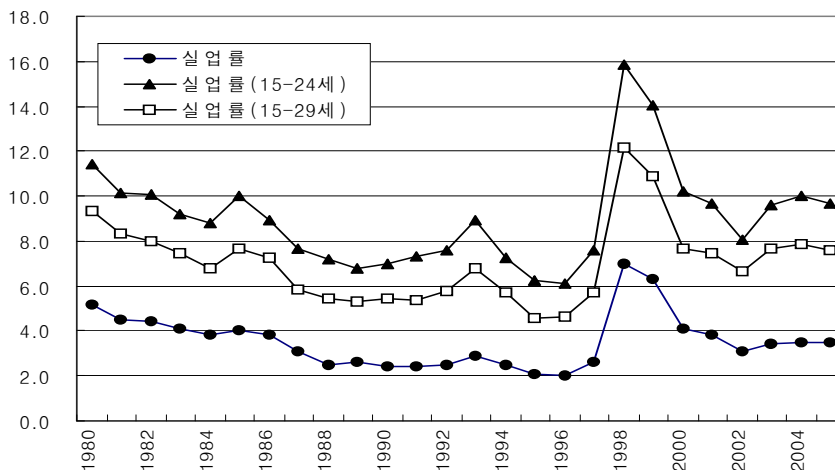
여은 많은 노력들 가운데 상당부분은 허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각종 청년실업대책들의 효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못한 상태에서 수립되고 운영되는 대책들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을 동태적인 측면에서 구명하고자 한다. 저장(stock)으로서 실업은 유량(flow)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동시장의 유량변수들을 통해 청년실업의 동태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실업의 원인을 기존의 접근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에 대한 노력과 성과의 불일치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II. 청년실업 현황 및 국제비교

먼저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을 실업률을 통해 살펴보자. [그림 1]은 15~24세와 15~29세 및 경제전체의 실업률을 그린 것이다. 청년층은 15~24세 또는 15~29세 연령으로 정의될 수 있다. 먼저 15~24세의 실업률은 그림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직전에 6%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와 함께 급증하여 1998년에 무려 16%에 육박한다. 이후 이들의 실업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에도 10%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29세 청년의 실업률도 이와 유사하게 움직이며 대략 2%포인트의 차

[그림 1] 실업률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률은 검은색 동그라미로 나타낸 경제전체의 실업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은 <표 1>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기간에서 경제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고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청년실업률 비율은 대체로 외환위기 전인 1997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5년의 청년실업률 비율은 15~24세에서 2.8, 15~29세에서 2.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표 1> 경제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

	1980-84	1985-89	1990-94	1995-97	1998-99	2000-04	2005
15~24세	2.3	2.6	3.0	3.0	2.2	2.7	2.8
15~29세	1.8	2.0	2.3	2.2	1.7	2.1	2.2

<표 2>는 이러한 청년실업률 비율을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15~24세에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비율은 2.5~2.9로서 표에 제시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으로 널리 사용되는 15~29세 연령으로 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청년실업률 비율은 스웨덴보다 낮으며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유사한 정도이다. 즉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특히 심각한 것은 아니다.

<표 2> 청년실업률의 전체 실업률 비율(청년실업률/경제전체 실업률)

	한국 (15-24세)	한국 (15-29세)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1990	2.9	2.3	2.0	2.0	2.2	0.9	2.6	1.5	2.0
2000	2.5	1.9	2.0	1.9	2.2	1.1	2.1	2.2	2.3
2001	2.6	2.0	1.9	1.9	2.2	1.1	2.4	2.1	2.3
2002	2.6	2.1	1.9	2.0	2.3	1.1	2.6	2.2	2.1
2003	2.8	2.3	1.9	1.9	-	1.1	2.5	2.3	2.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 2004.

### III. 청년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실업률은 동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량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어떤 유량변수가

청년의 높은 실업률을 초래하였는지 살펴보자. 먼저 분석에 필요한 모형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 1. 모형

취업상태를 E, 실업상태를 U, 비경제활동상태를 N으로 나타내자. 그리고 이웃한 두 달을 연결한 패널자료에서 취업상태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실업으로 옮겨간 사람의 수를 EU, 비경제활동상태로 변한 사람의 수를 EN,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를 EE 등과 같이 나타내기로 하자. 그리고 EE, EU, EN을 각각 처음 취업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수로 나눈 것을 소문자로 나타내자. 그러면 eu는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옮겨갈 이행확률이고 ee는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확률이게 된다. 이러한 이행확률들을 사용하면 노동시장의 동태적인 모습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직률(job separation rate)과 입직률(job finding rate)을 각각  $\alpha$ 와  $\beta$ 라 하면 이들은 다음과 같이 이행확률들의 결합으로 정의된다.<sup>1)</sup>

$$\alpha = eu + en \cdot (1 - P_{ne}) \dots\dots\dots (1)$$

$$\beta = ue + un \cdot P_{ne} \dots\dots\dots (2)$$

$$P_{ne} = ne / (ne + nu) \dots\dots\dots (3)$$

이직률과 입직률을 각각 위와 같이 정의할 경우 경제상태에서 실업률은  $\alpha/(\alpha+\beta)$ 로 결정된다.<sup>2)</sup> 따라서 이행확률들을 구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이직률과 입직률을 얻으면 신규졸업자 집단들의 높은 실업률이 과연 높은 이직률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낮은 입직률 때문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 2. 이직률과 입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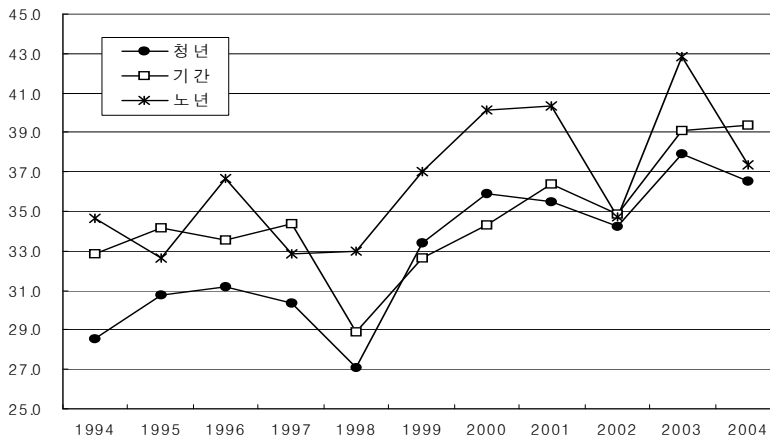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2]와 [그림 3]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패널로 구축하여 연령집단 별로 입직률과 이직률을 구하여 그린 것이다. 단, 여기서 청년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15~29세 연령을 말하며 기간노동력(primary labor force)은 30~54세, 그리고

1) 보다 자세한 것은 Marston(1976)을 참조.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이직률과 입직률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직률, 입직률과 다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alpha$ 를 실업유입률,  $\beta$ 를 취업유입률로 부르기도 한다.  
 2) 경제상태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실업률은 이직률과 입직률에 의해 결정됨은 분명하다. 다만 그 함수 형태가 달라질 따름이다. 본 연구는 경제상태를 상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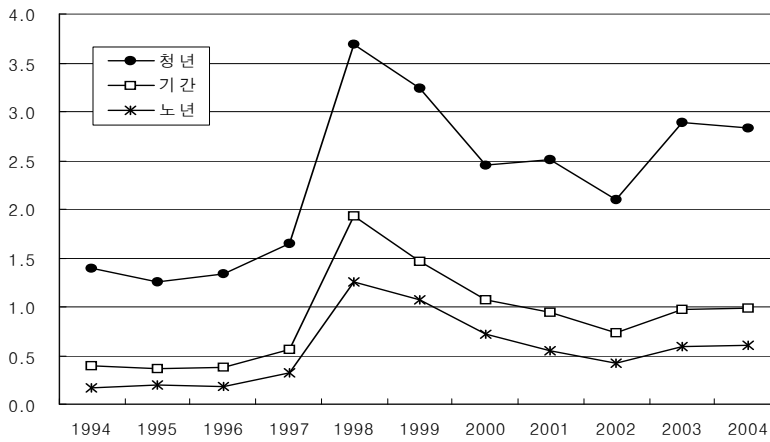
노년 노동력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입직률은 연령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외환위기 발생 이후부터 청년의 입직률은 기간노동력의 입직률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의 높은 실업률은 입직률이 아니라 이직률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데, 우리는 이를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청년의 이직률은 기간노동력이나 노년 노동력의 이직률에 비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이직률은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과 2004년의 이직률은 외환위기 이전 청년 이직률의 두 배에 달한다.

[그림 2] 연령집단별 입직률



[그림 3] 연령집단별 이직률



이로부터 우리는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이들의 빈번한 이직 때문이지 입직의 어려움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한 일자리에서 쉽게 이직하기 때문에 청년의 실업률이 높은 것이다.<sup>3)</sup> 청년이 빈번하게 이직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청년은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거나 진입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청년은 자신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청년이 일자리를 통해 얻게 될 예상 수익의 발생기간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장기이므로, 청년의 이직가능성은 높아진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이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므로 효과적인 청년실업대책은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어야 한다. 인턴제를 비롯한 입직을 촉진하는 정책들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 IV. 신규 졸업자 노동시장

우리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교를 새로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신규 졸업자들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본고는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실업률을 통해 살펴보자.

##### 1. 신규 졸업자 실업률

청년실업을 말할 때 우리는 청년 전체보다는 주로 신규 졸업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 지표가 생산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년 전체의 노동시장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신규 졸업자들을 식별하고, 다음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실업률로 측정하기로 한다.

먼저 신규 졸업자를 식별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sup>4)</sup> 첫째, 교육정도에 대한 정보와

3)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을 15~27세로 정의하면 연령집단별 입직률 차이는 더욱 작아진다(남재량, 2002).

4)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졸업연도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신규 졸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최근 연도에 도입된 것이므로 장기간의 분석을 하는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함께 당해 연도에 새로 졸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청년 가운데 지난해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이거나 중퇴하였거나 휴학중인 사람들로부터 신규 졸업자들을 분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들이 취업하고 있는지 실업상태에 빠져있는지 아니면 비노동력으로 남아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전체의 실업과 취업규모, 실업률 등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일 실시하는 조사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이 조사는 개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육정도'에 대한 조사이다. 교육정도에는 '학력'과 함께 '수학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규 졸업자 여부는 조사되지 않는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를 위해 추출한 표본을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매일 조사하므로 조사된 원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할 수 있다.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개인들의 '학력'<sup>5)</sup>과 '수학여부'<sup>6)</sup>가 조사되고 있고 조사된 원자료들을 패널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신규 졸업자들을 식별해 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2월 무렵에 졸업하므로 패널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2월을 전후한 시기에서 '수학여부'가 '재학'에서 '졸업'으로 바뀐다면 이러한 개인들은 당해 연도에 새로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다. 일단 이러한 신규 졸업자들을 식별하고 나면 이들의 매일 경제활동상태는 쉽게 파악된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졸업자 가운데 실업에 처한 사람들의 수와 신규 졸업자 집단들의 실업률 등 여러 실업 관련 지표들을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본고는 1월에 재학중이었다가 2월에 졸업하였다고 답한 사람들과 2월에 재학중이었다가 3월에 졸업이라고 답한 사람들을 신규 졸업자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식별한 신규 졸업자들을 학력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실업률을 구하여 그림으로 그린 것이 [그림 4]이다. 다만 그림은 졸업 전후의 가까운 시기에 신규 졸업자 집단의 실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월과 3월 및 4월 실업률을 평균하여 제시하고 있다.<sup>7)</sup>

그림에서 보듯이 신규 졸업자 집단들의 실업률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교육정도를 막론하고 신규 졸업자들의 실업률이 강한 하락추세를 보인다. 1983년 이후 학력 집단을 막론하고 실업률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실업률 하락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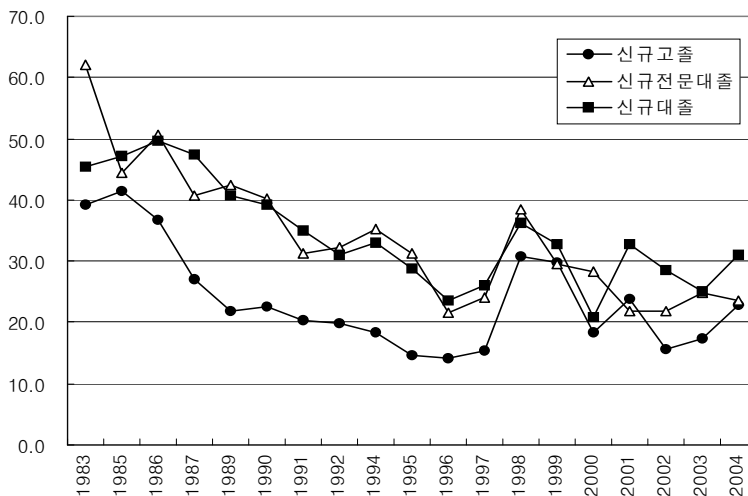
5)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학력'이라 함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초급대), 대학, 대학원 등의 구분을 말한다.

6)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수학여부'라 함은 졸업, 재학, 중퇴, 휴학 등의 구분을 말한다.

7) [그림 4]는 2-4월 실업률 평균을 그린 것이지만 1~12월까지 1년 동안 평균한 실업률의 움직임도 이와 유사하다.

세가 성과 연령 및 교육정도 등으로 구분한 세부 노동력 집단들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라는 사실이 신규 졸업자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주는 결과이다. 둘째, 신규 졸업자 집단들의 실업률이 매우 높다. 지속적인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졸업자들의 실업률은 전문대 및 대졸의 경우는 20% 이하로 내려간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이며 1998년에 이들 세 집단의 실업률이 모두 30%를 넘을 정도로 높다. 2004년에도 이들의 실업률 수준은 여전히 높아 신규 고졸자의 실업률은 22.7%이고 신규 전문대졸자의 실업률은 23.7%이며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은 30.9%이다. 셋째, 신규 고졸자의 실업률이 가장 낮고 전문대졸과 대졸의 경우는 유사한 정도로 높으며 움직임도 닮았다.

[그림 4] 신규졸업자 실업률



## 2. 신규 졸업자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이제 신규 졸업자 노동시장을 동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신규 졸업자 실업의 원인을 알아보자. 앞에서 이직률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직률을 먼저 보면 [그림 5]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신규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의 이직률은 그 수준과 움직임에 있어 모두 유사하다. 반면 신규 고졸자의 이직률은 1997년부터 이들 학력집단들과 괴리되기 시작하여 2004년에도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인다. 즉 신규 고졸자가 더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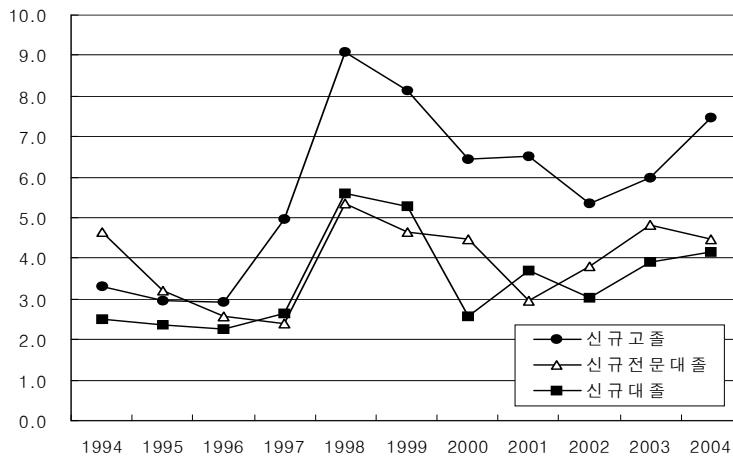
신규 고졸자는 이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직률도 높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신규 전문대 졸업자와 신규 대학 졸업자의 입직률은 대체로 유사한 정도이나 신규 고졸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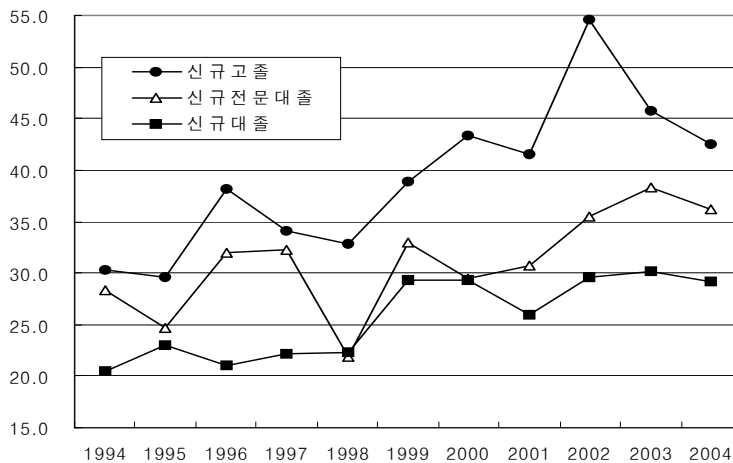
입직률은 이들에 비해 상당 정도 높다. 뿐만 아니라 세 집단 모두의 입직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신규 고졸자의 입직률 상승이 급격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졸업자의 학력별로 실업의 특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즉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규 고졸자의 실업률은 신규 전문대졸이나 신규 대졸의 경우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고졸자의 이직이 빈번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신규 고졸자의 이직률은 다른 학력집단들의 이직률보다도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졸자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입직 또한 매우 신속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하의 기간을 제외하면 신규 고졸자

[그림 5] 신규 졸업자 이직률



[그림 6] 신규 졸업자 입직률



의 실업률에는 별 변화가 없지만 신규 고졸자의 입직률과 이직률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규 고졸자의 이직률과 입직률이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률에 별 변화가 없는 것이다.

### 3. 신규 졸업자의 종사상 지위

신규 고졸자는 전문대나 대학 신규 졸업자와 구분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즉 빈번한 이직과 신속한 입직이 신규 고졸자의 중요한 특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규 고졸자의 특성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다른 모든 상황이 동일한 상태에서 신속한 입직과 이직이 반드시 부정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3>은 이를 보기 위해 신규 졸업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비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세 학력집단 모두에서 상용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일용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용직화 현상은 신규 대졸자에서는 약한 정도로 나타나지만 신규 고졸자에게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신규 고졸자 가운데 일용직 종사자의 비중이 1994~1995년의 7.1%에서 2002~2004년의 38.7%로 무려 31.6%포인트 만큼이나 상승하였다. 결국 신규 고졸자의 높은 입직률과 이직률은 이들의 일용직화가 급격히 진행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적임을 알려준다.

<표 3> 신규 졸업자의 종사상 지위(2~4월 평균)

(단위 : %, %포인트)

		1994~95	1996~97	1998~99	2000~01	2002~04	변화분
신규고졸	상용직	42.4	39.5	21.2	17.5	17.0	-25.4
	임시직	50.5	51.1	54.5	51.0	44.3	-6.2
	일용직	7.1	9.4	24.3	31.5	38.7	31.6
신규 전문대졸	상용직	54.0	55.3	37.1	39.1	37.5	-16.5
	임시직	39.5	39.6	49.6	46.9	50.1	10.7
	일용직	6.6	5.1	13.3	14.0	12.4	5.8
신규대졸	상용직	61.5	62.8	40.5	49.4	51.1	-10.4
	임시직	34.3	34.5	51.1	43.2	43.0	8.7
	일용직	4.2	2.7	8.4	7.4	5.9	1.8

## 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청년실업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번번하게 이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의 청년실업 정책에 중요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인턴제도<sup>8)</sup>와 같이 입직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이직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청년실업대책들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인턴제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등 청년실업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생각된다.

신규 졸업자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를 생산하고 이들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신규 고졸자의 실업률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직률과 이직률은 높은 수준이며 시간에 걸쳐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태적 특징은 신규 고졸자의 일용직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신규 고졸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고용불안정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와 있었다. 이들 신규 고졸자는 고졸자로 분류되는 대학 재학·중퇴·휴학자가 아니라, 순수한 고등학교 졸업자이다. 이들 신규 고졸자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용직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신규 고졸자는 청년 가운데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년실업의 방향을 청년 가운데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돌려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남재량(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청년무업자(NREET)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청년 취약계층들을 찾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

8) 2004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가운데 취업지원제에 의한 인턴근로제도는 기업이 18~30세의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의 비용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노동백서(2005: 33) 참조.

거나 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며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청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턴제와 같은 입직을 촉진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직업교육을 비롯한 이직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신규 고졸자와 청년 무업자를 비롯한 청년 취약계층으로 청년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44]**

#### <참고문헌>

남재량(2002), 「청년실업과 대졸자 실업」,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

\_\_\_\_\_ (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2005), 『노동백서』.

Marston, Stephen T.(1976), “Employment Instability and High Unemployment Rat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1, pp.169~203.